

IPCC AR6 종합보고서 승인 기념 포럼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

2023. 4. 12. (수) 14:00 |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



주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국회기후변화포럼

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행사개요

행사명 IPCC AR6 종합보고서 승인 기념 포럼

일 시 2023. 4. 12. (수), 14:00

장 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F 다이아몬드홀

* 온라인 생중계  YouTube [기상청, 국회기후변화포럼](#) 

주 제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

진행방식 온·오프라인 연계 하이브리드 방식 (유튜브 실시간 송출)

[유튜브 송출 채널]

기상청 | <https://www.youtube.com/@KMA0365best>

국회기후변화포럼 | <https://www.youtube.com/@climateforum>

주 최



기상청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국회기후변화포럼

후 원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프로그램

I. 개막행사 및 메인세션	
14:00 ~ 14:05	▶ 개회식
14:05 ~ 14:40	▶ 환영사 및 축사 - 개회사: 유희동 기상청장 - 환영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환영사: 한정애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 축 사: 지성호 국회의원 - 축 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
14:40 ~ 15:00	▶ VR드로잉 퍼포먼스 ▶ 기념 촬영
15:00 ~ 15:50	▶ 기조연설 : 이회성 IPCC 의장 -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에 주는 시사점
15:50 ~ 16:00	휴식
II. 세부세션 : IPCC AR6 종합보고서 및 정책 제언	
16:00 ~ 17:20	▶ 패널토론 - 좌 장: 윤제용 교수(서울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 패 널: 유연철 사무총장(UNGC 한국협회, 전 기후변화 대사) 김성균 원장(국립기상과학원) 양의석 부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 박철호 정책연구본부장(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수종 교수(서울대학교, 탄녹위 위원) 이창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김종남 원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20 ~ 17:30	▶ 폐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 유희동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영상으로 참석해주신 한정애 의원님, 오늘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지성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 행사를 저희 청과 함께 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공동위원장님,

축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님, IPCC AR6 종합보고서의 정책적 함의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회성 IPCC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저희 청과 같이 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제6차 평가주기 동안

저희 청과 같이 IPCC 보고서 대응에 힘써주신 IPCC 실무그룹별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이자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국립기상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에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19일, IPCC 보고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AR6 종합보고서가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그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위기를 강조했던 이전 보고서와는 달리,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기후위기 상황은 대응하기에는 녹록치 않습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 상승했으며, 그 변화 속도 또한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릅니다.

호우, 홍수, 폭염 등 기후위기가 물고 오는 각종 극한 현상들은 더욱 강력하고 빈번해질 것이며, 이는 역사적 책임이 가장 적은 개발도상국의 취약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어린 세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축 정책은 1.5도 지구온난화 억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IPCC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강화 없이는,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기온이 3.2도 상승할 것이며,

1.5도 지구온난화 억제까지 남은 탄소허용배출총량 역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IPCC가 이번 10년간 다양한 부문별, 행위주체별 기후 행동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IPCC는, 기술이전, 금융 지원 등의 국제협력과 각 당사국의 현 상황에 맞는 적응 및 감축 정책 수립, 그리고 기후 행동을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에너지, 토지, 인프라, 소비자 선택 등 여러 부문의 감축 및 적응 옵션을 제시하여 단기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한 기회가 아직 다양하게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IPCC AR6 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진두지휘하신 이회성 의장님으로부터 직접 종합보고서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럼에서 다루어질 종합보고서의 시사점과, 적응 및 완화의 부문별 제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상청 역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 부처로서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고도화하여

관계부처의 탄소중립 정책 적극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대국민 소통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기상청장
유희동

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상협입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IPCC 제58차 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제6차 종합보고서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 개최에 힘써주신 기상청의 유희동 청장님, 국회기후변화포럼의 한정애 의원님과,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지성호 의원님, 한화진 환경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제6대 IPCC 의장으로서 기후위기 극복에 누구보다 앞장서주시고 오늘 기조연설로 자리를 빛내주시길 이회성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 밖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PCC 제1차 보고서가 나온 1990년만 해도, 기후변화는 미래의 위협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오늘날, 극한 고온, 호우, 가뭄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기후변화는 전 지구에게 닥친 현재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을 맞아 IPCC의 메시지와 대한민국이 그려나가는 미래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PCC 보고서가 그간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기후변화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섯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IPCC가 전 세계에 던져온 기후변화의 메시지는 각국이 기후위기에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한다는 경고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PCC는 2018년의 1.5°C 특별보고서, 2021년의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한 1.5°C 지구온난화 시기가 바로 우리 눈 앞에 다가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의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를 지난 3월 승인하고 다시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것은 우리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도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우리 정부는 초정권적인 자세로 기존의 NDC 40%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이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온실가스 40% 감축은 어려운 목표이지만 현실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탄녹위는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그러했듯 이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각 계의 목소리를 듣는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해 기본 계획이 우리가 설정한 방향대로 가고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진통 끝에 세상에 나온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IPCC와 기본계획 더욱 잘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IPCC 제7차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2030 NDC를 넘어선 2035 NDC를 고민할 것입니다. 국가 기본계획은 20년 기간으로 만들어졌지만 롤링 플랜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더 많은 연구자들이 IPCC 제7차 보고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PCC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 제언들을 국가 기본계획에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제7차 종합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탄소중립 노력으로 전 지구의 기후위기가 한층 완화되고, 인류가 기후위기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 계묘년입니다.

‘토영삼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토끼는 영리한 동물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세 개의 굴을 미리 파 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토끼와 같은 지혜를 갖추고 IPCC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세 갈래의 기후위기 극복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분석에 기반해 기후위기를 더욱 정밀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기후변화의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책·금융·기술의 대변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어 탄소중립·녹색성장이 실현되는 그 날이 2050년보다 더욱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세대는 기후위기를 과거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지금 우리 세대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상협

환영사



반갑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한정에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유희동 기상청장님, 김상협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IPCC 종합보고서 마련을 위해 노고를 다해주셨습니다. 이회성 IPCC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주실 윤제용 교수님과

관계 부처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향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지구의 달 4월입니다. 지난 3월, 전 세계 195개국은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10년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경고와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응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보다 도전적이고, 보다 신속하고, 더욱 과감한 기후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 모두가 함께 할 때, 우리의 행동은 증폭되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공포가 아닌 해결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정파를 초월한 강력한 의지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과 행동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전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한 대전환적 과제를 모색하겠습니다.

기후 취약지역과 계층 보호를 위한 적응대책 강화 방안 역시 강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행에 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후퇴와 정체가 아닌 행동의 진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대한민국 기후행동! 바로 오늘 개최되는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전 지구적 1.5도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 마련을 위한 여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4.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지성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유희동 기상청장님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정에 의원님, 한화진 환경부 장관님과 자리를 함께하며 축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대 IPCC 의장으로서, IPCC의 제6차 평가주기의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부터 종합보고서까지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공헌하신 이회성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환경과 인권 등 국민의 보호와 안전의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재해를 경험하면서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왔는지 더욱 현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전 세계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당일 언론은 너 나 할 것 없이 ‘기후변화의 최종 경고’, ‘암울한 전망만 가득한 기후보고서’ 등의 내용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다소 자극적으로 표현되기는 했으나, 이번 IPCC 제6차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는 기후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신속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1일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여 분야별 공청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이제는 모두의 힘과 노력을

‘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는 목표로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기후위기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미있는 토론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발전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번 본 행사를 주최해 주신 기상청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회기후변화포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국회의원
지성호

축사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먼저, 이번「IPCC AR6 종합보고서 승인 기념」포럼을 준비해주신 유희동 기상청장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주신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의원님, 그리고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발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이회성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의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 만드는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권위 있는 과학적 근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는 매 회차 발표될 때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며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이 탄생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IPCC는 이회성 의장님이 이끄시는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기온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전 지구적 기후행동(Climite Action)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제6차 종합보고서는 올해 첫 시행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GST)’에 활용되어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근거자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탄소중립·녹색성장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이행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보다 현실적인 구체적 정책수단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행점검과 환류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탄소중립이 실질적인 행동과 변화로 이어지고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의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의 기후변화 “완화”이지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의 축적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 위기시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 3.5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중이며 기후 적응의 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2023 UNFCCC 적응주간’ 행사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이번 제6차 종합보고서에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이고 현실적 해법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환경부장관
한화진

I . 메인세션 : 기조연설

-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에 주는 시사점



이회성

IPCC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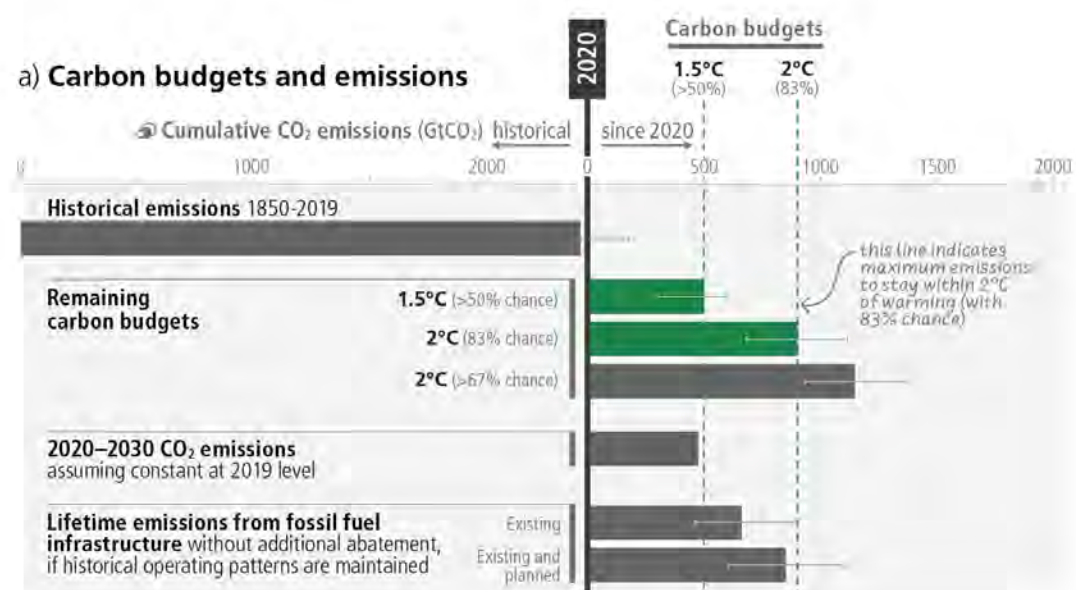


최적 기후행동?

- 파리협정 2조: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2°C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C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
- 탄소배출 총량규제 = 탄소예산
- 파리협정 4조: 자발적 감축 (NDC)
- 향후 30년 온난화 피할 수 없음
- 선제적 적응
- 오버슈트 최소화
- 감축행동
- 글로벌·로컬·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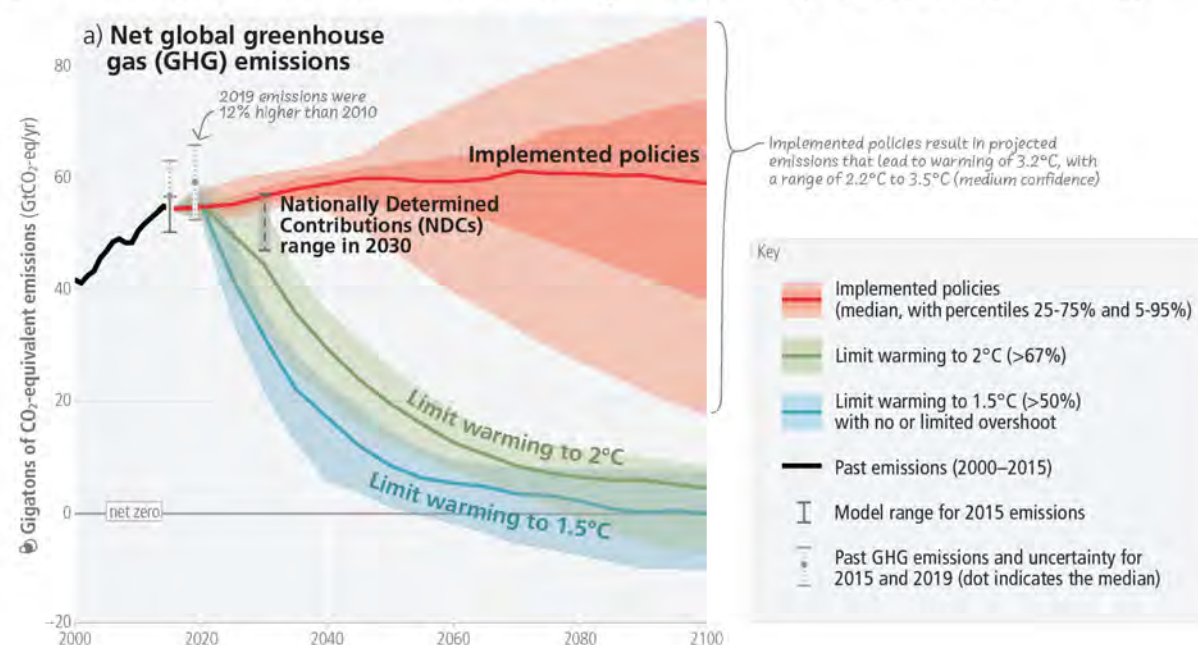
탄소예산: 500 GtCO₂ (1.5°C), 1150 GtCO₂ (2°C)

- 현존+계획 화석에너지시설의 예상배출량 = 850 GtCO₂
- 2°C 제한에서 화석에너지 자산손실 (2015 -2050): US\$ 1-4 tr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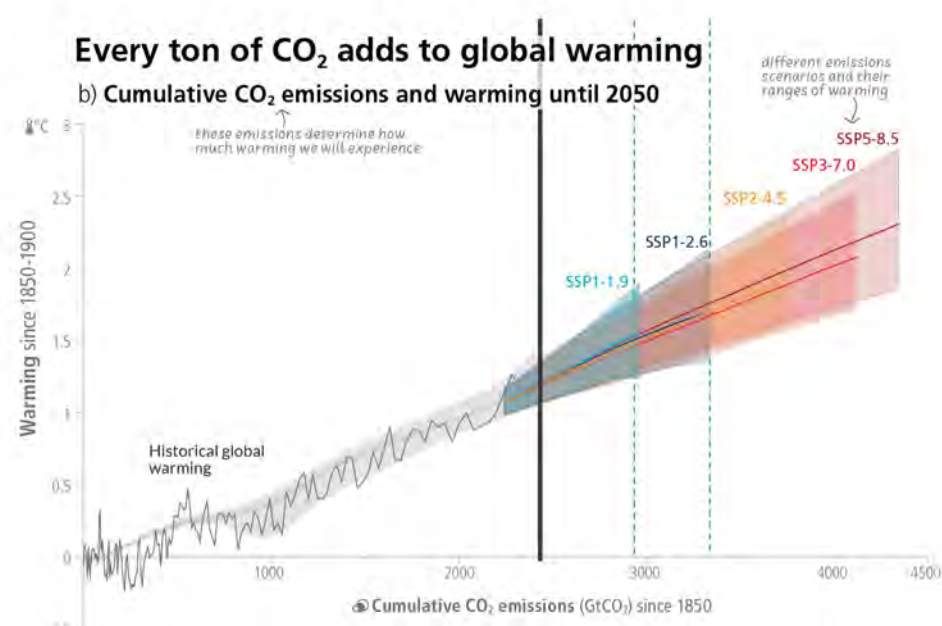


자발적 감축 목표 평가

- 현재 NDC는 2.2°C - 3.5°C (2100년) 온난화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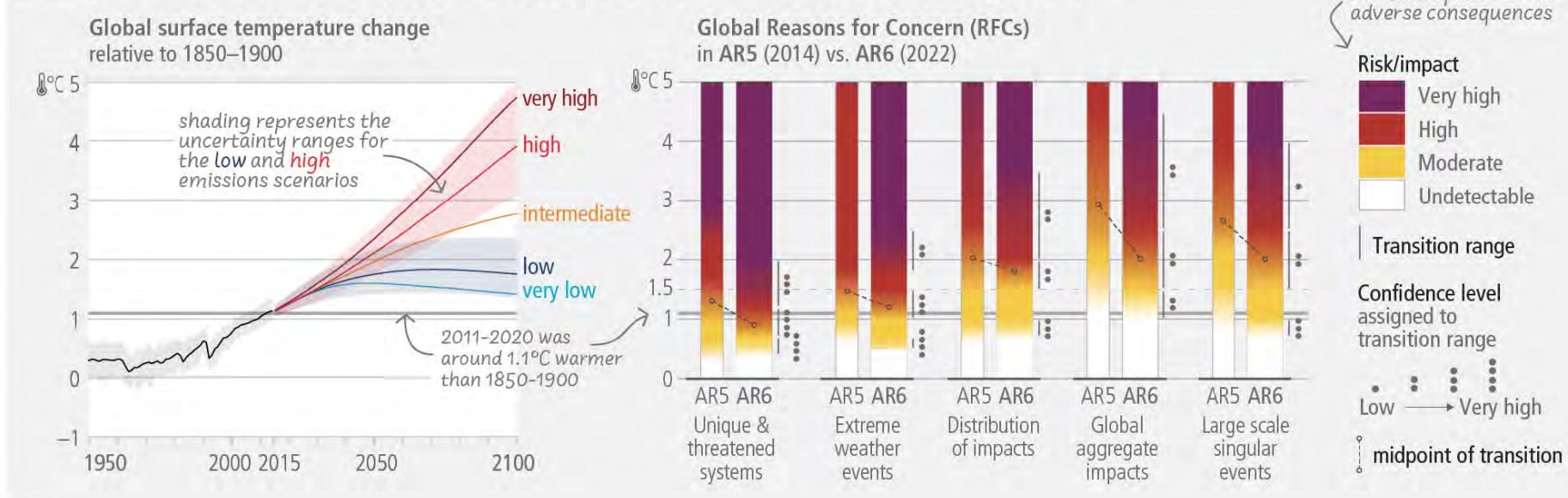


향후 30년 동안 온난화 피할 수 없음 1.5°C 온난화에 선제적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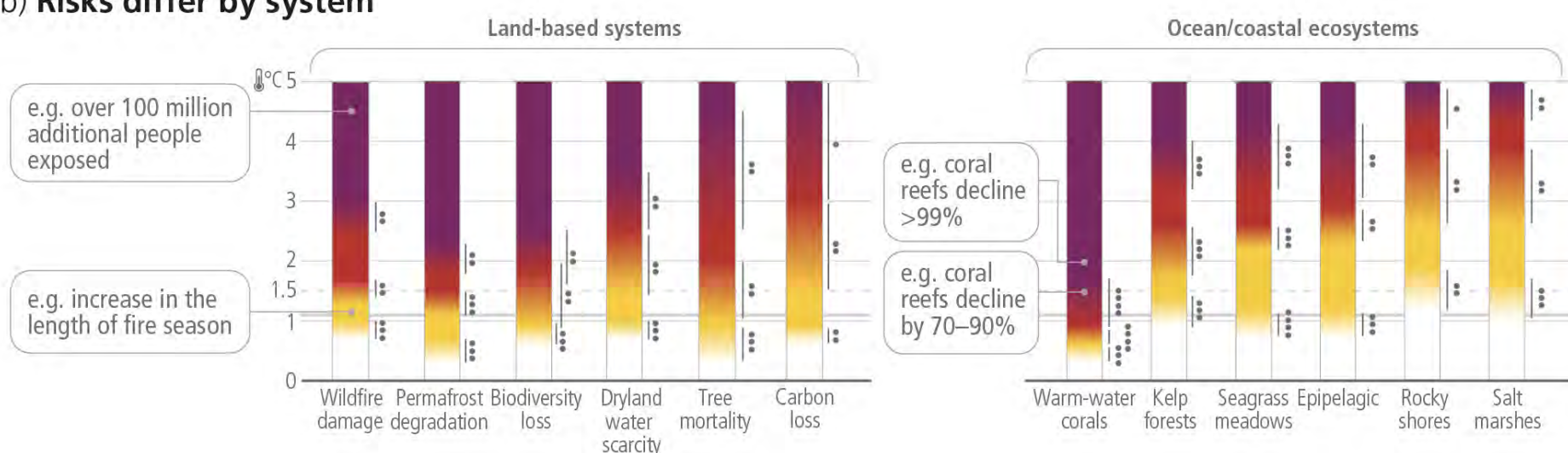
온난화의 영향: AR5 보다 심각

a) High risks are now assessed to occur at lower global warming lev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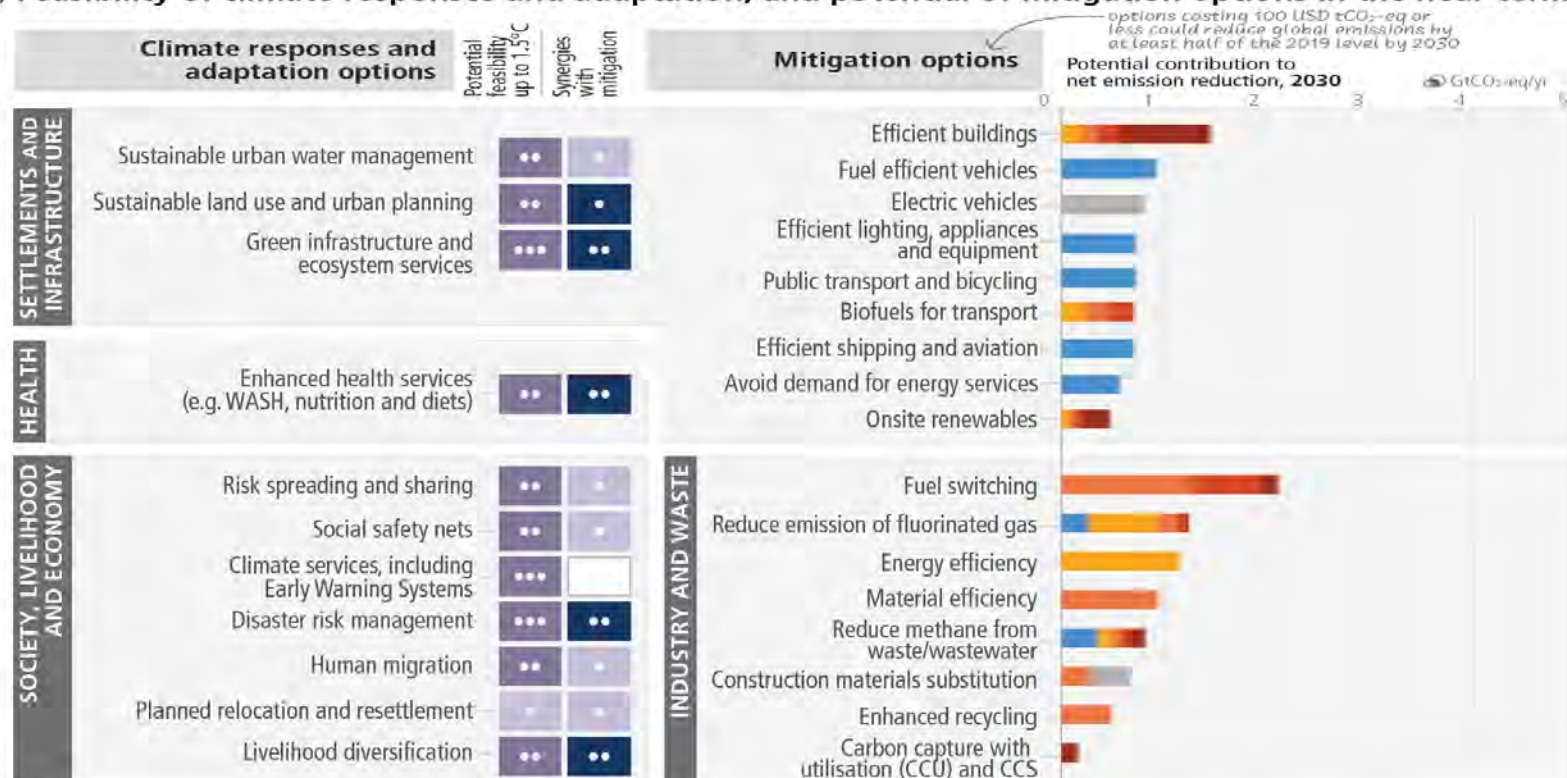
온난화의 영향

b) Risks differ by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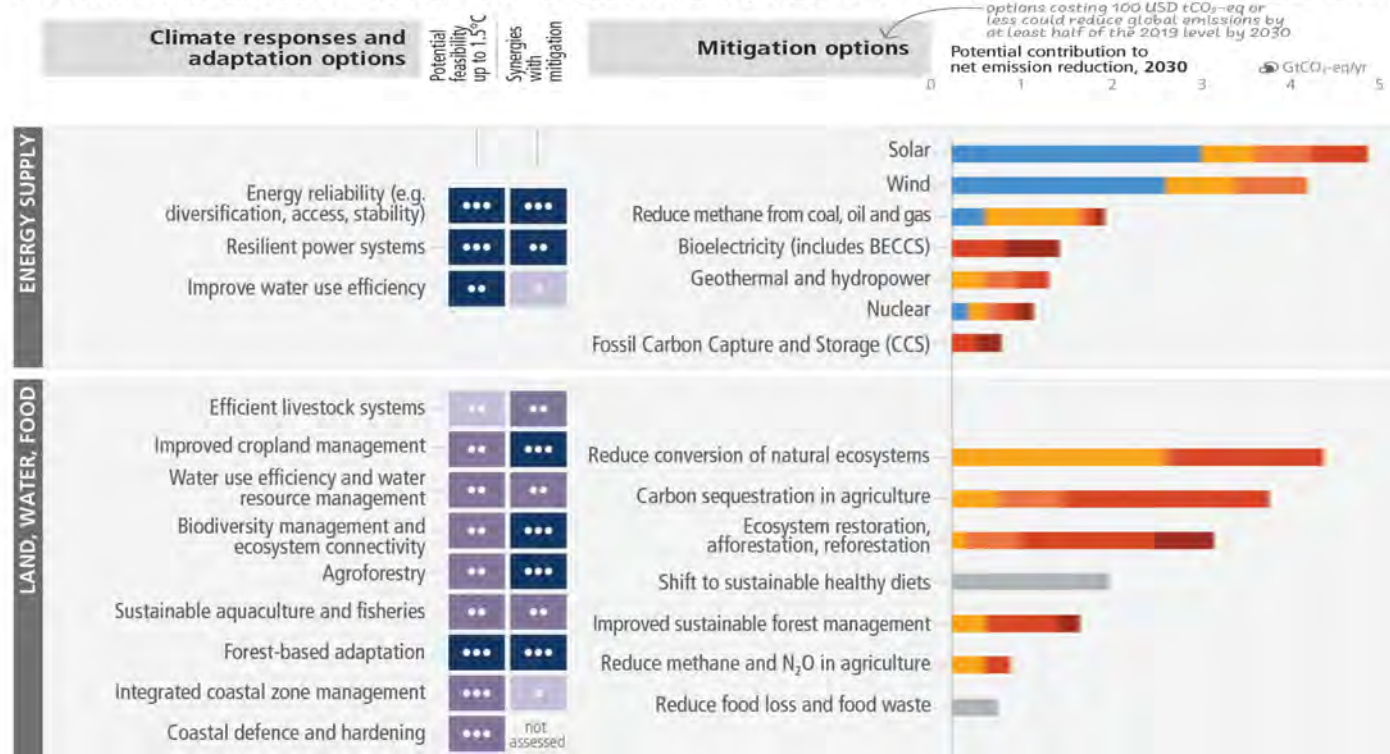
선제적 적응 및 감축

a) Feasibility of climate responses and adaptation, and potential of mitigation options in the near-term



선제적 적응 및 감축

a) Feasibility of climate responses and adaptation, and potential of mitigation options in the near-te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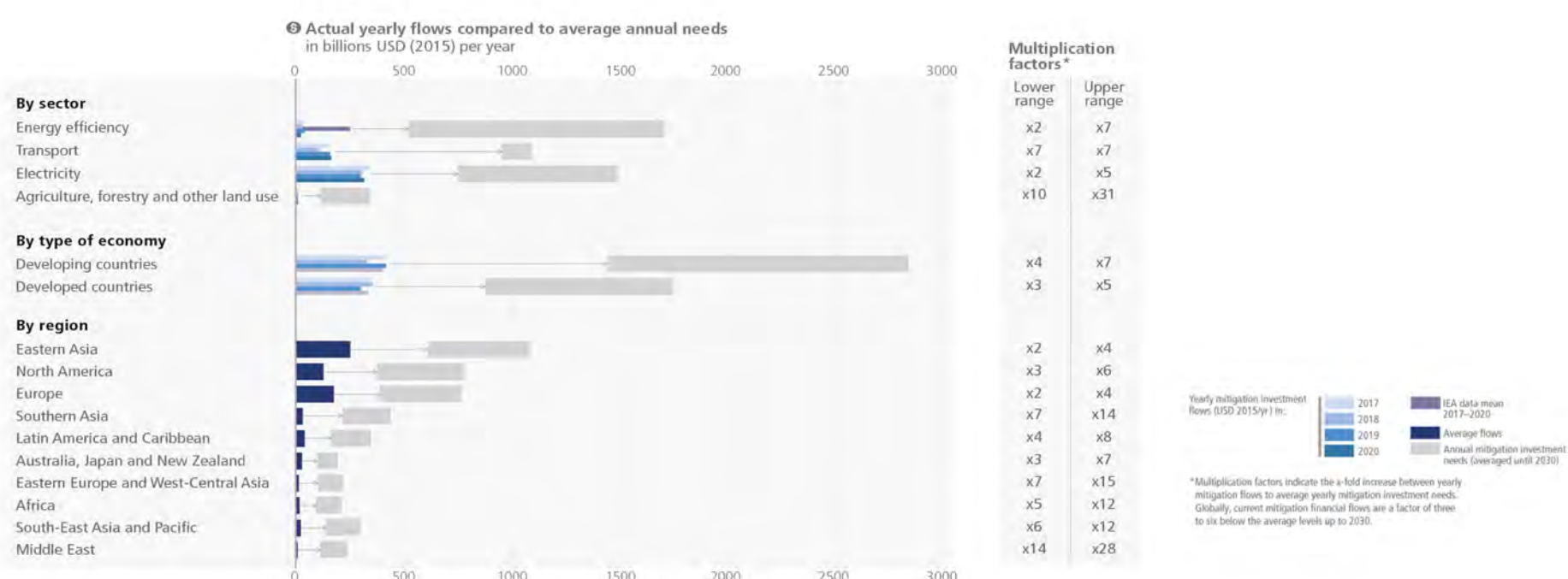
오버슈트: 1.5°C + (0.1°C ~ 0.3°C) 후 2100년 1.5°C로 회귀

- 1.5°C로 회귀해도 일부 생태계는 온난화 피해로 부터 회복불능: 극지, 고산지대, 해변생태계
- 1.5°C 회귀: 대기로부터 CO₂ 제거해 대기의 CO₂ 총량 감소.
- 0.1°C 회귀에 필요한 CO₂ 제거량 = 220 Gt CO₂
- CO₂ 제거량 이 클수록 경제성 악화 환경적 피해 증가
- 오버슈트의 비용 = 오버슈트 기간에 발생한 생태계 피해 + CO₂ 제거 비용
- 지금 배출을 많이 줄일 수록 오버슈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감축행동

- 에너지이용효율성
- 원자재이용효율성
- 자원순환성
- 음식물 폐기물
- 식물성 단백질
- 토지이용에 대한 경쟁
- 무탄소전력생산
- 최종에너지의 전력화
- 공급망 저탄소화
- 항공해운부문의 저탄소화
- 철강시멘트석유화학의 저탄소화
- 이산화탄소 제거
- CCUS

감축행동 투자수요와 공급



글로벌·로컬·개인

- Global Cost-Benefit: 2°C 안정화 목표 Net Benefit (NB) > 0
- Global NB 가 local NB로 연결되어야 자발적 기후행동 가능.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 감축비용: 2°C 안정화 global GDP의 1.3-2.7%; 1.5°C 안정화 2.6-4.2%. 양자간 비용차이 = 최대 2.9%. 0.5°C 추가 안정화의 혜택이 global GDP 2.9% 보다 클 것인가?
- 소비기준CO2배출량과 생산기준CO2배출량의 비율이 선진국의 경우 >1. 개도국의 저탄소화가 global 탄소중립의 관건.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지원 필수.

II. 세부세션 : IPCC AR6 종합보고서 및 정책 제언

·패널 토론

좌장

윤제용 교수

서울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패널

유연철 사무총장

UNGC 한국협회, 전 기후변화 대사

양의석 부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수종 교수

서울대학교, 탄녹위 위원

김종남 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성균 원장

국립기상과학원

박철호 정책연구본부장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이창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II. 세부세션 : IPCC AR6 종합보고서 및 정책 제언

· 패널 토론



좌장

윤제용 공동대표

국회기후변화포럼

약력

-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버팔로) 환경공학 박사
-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전)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II. 세부세션 : IPCC AR6 종합보고서 및 정책 제언

· 패널 토론



패널

유연철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약력

- 영국 리딩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 (전) 기후변화대사
- (전) 환경부 국제협력관



II. 세부세션 : IPCC AR6 종합보고서 및 정책 제언

· 패널 토론



패널

김성균 원장

국립기상과학원

약력

-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박사
- 국립기상과학원장
- (전) 수도권기상청장
- (전) 부산지방기상청장



II. 세부세션 : IPCC AR6 종합보고서 및 정책 제언

· 패널 토론



패널

양의식 부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약력

-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대행
- 산업통장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 (전)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위원회 위원



II. 세부세션 : IPCC AR6 종합보고서 및 정책 제언

·패널 토론



패널

박철호 본부장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약력

- 부산대학교 재료공학 박사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장
- (전) 삼성SDI 전임연구원
- (전) 동부하이텍 책임연구원

II. 세부세션 : IPCC AR6 종합보고서 및 정책 제언

· 패널 토론



패널

정수종 교수
서울대학교

약력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미국우주항공국(NASA) 온실가스 위성 국제연구팀
- 유럽우주항공국(ESA) 기후변화 및 환경위성 국제연구팀

II. 세부세션 : IPCC AR6 종합보고서 및 정책 제언

· 패널 토론

패널



이창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약력

-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교수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
- (전) 한국생태학회 회장
- (전) 동아시아생태학회연합 회장



II. 세부세션 : IPCC AR6 종합보고서 및 정책 제언

· 패널 토론



패널

김종남 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약력

- KAIST 화학공학과 박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
-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오시는 길



지하철로 오시는 법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하차 (1, 2번 출구 5분 거리)

자가용으로 오시는 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전경련회관)

마포대교 남단 방향
마포대교 남단 > MBC방면 좌회전 > MBC앞 사거리 우회전 > 사학연금회관 건물 끼고 우회전 > FKI TOWER

올림픽대로 진입 시
올림픽대로 > 여의상류IC > MBC앞 사거리 우회전 > 63빌딩 좌회전 후 직진 > 광장아파트 지나 우회전 > FKI TOWER

영등포 방향
영등포 > 서울교 > FKI TOWER

버스로 오시는 법

전경련회관
지선 5012, 5615, 5618, 5713, 6513, 6628, 6649
간선 160, 162, 360, 503, 600, 662
광역 300, 301, 320, 700, 871, 10, 11-1, 11-2, 83, 88, 88-1, 510, 53

여의도역
지선 5012, 5618, 5623, 6513
간선 153, 162, 261, 262, 362, 461, 503, 753
광역 7007-1, M7625, 108, 700, 5601

여의도공원 앞
지선 5012, 5713, 6513, 6623, 6628, 6649
간선 160, 260, 360, 600, 662
광역 300, 700, 11-1, 11-2, 83, 88, 88-1





IPCC AR6 종합보고서 승인 기념 포럼

IPCC AR6 종합보고서 승인 기념 포럼 운영사무국

Tel. 070-8670-4421

E-mail. mice.jbsquare@gmail.com